

## 2

## 야마토 왜(倭)의 출발시점:

창건자 호무다와케(應神) -

고사기, 일본서기 내용 분석에

치중하는 접근 방법

사에키(佐伯有清, 1977)가 말하듯이, “중국의 사서 위지(魏志)에 실린 왜전(倭傳)의 기록에 의거해서, 2세기와 3세기의 일본 역사를 어느 정도 재구성해 본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송서(宋書) 이만전(夷蠻傳)의 일본(倭國)에 관한 부분에 실린 “왜오왕(倭五王)”의 기록에 의거하여, 5세기의 일본 역사를 어느 정도 재구성해 본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사에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4세기에 대해서는 실존하는 기록이 없으며,” 그러기 때문에 “이 기간을 흔히 『불가사의한 신비의 4세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 . . .”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가 편찬 될 당시에는, 이들 저자들도 위지(魏志)를 읽어 볼수 있었기 때문에, 진구우(神功)의 이야기란 것은 위지에 기록되어 있는 무녀(巫女)여왕 히미코(卑彌

呼)에 관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 아닌게 아니라 일본서기는(N 1 : ) 진구우(神功)를 기록하는 장에서, 왜(倭)의 여왕(히미코)에 관한 위지의(서기 23년) 기록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쓰다(津田佐右吉, 1950: 161-162)에 의하면, 진구우에 관한 기록은 위지에 나오는 왜 여왕 히미코에 대한 기록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오진(應神)과 그 뒤를 잇는 역대왕들의 재위 기간이 앞으로 끌어 올려지고, 또 그들 재위 기간 자체가 연장 될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오오진 재위 기간중에 일본과의 교섭을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과 근구수왕(近仇首王)의 치세도, 간지(干支)를 실제보다 120년, 즉 두 주기(周期)나 앞당겨 놓아야 했다. 그러나 쓰다는, 오오진조(應神朝)가 진구우조(神功朝) 바로 뒤에 오도록 꾸민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sup>〈4. 7〉</sup>

레드야드(1975)도, 일본서기의 저자들이 위지를 구해볼 수 있었고, 또 위지가 히미코 여왕을 서기 230년대와 240년대라는 시간적 테두리 안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품이 위지의 사료와 완전히 일치하도록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진구우(神功)에게 히미코 여왕의 앞뒤 양쪽으로 각기 한 세대가 포함되는 긴 치세(서기 200-269년)를 주었고, “그러기 위해 그들은 호무다(譽田別, 應神)의 치세를 2주갑(二周甲) 앞 당겨야했으며, 그러다 보니까 오오진의 치세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서기 389년(120년 후)이 아니라, 269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호무다(應神)를 진구우의 아들로 만들어 놓았으며, 따라서 진구우기(神功紀, NI: 224-235)에는 야요이(彌生)시대의 이야기와 중기 고분시대(中期古墳時代)의 이야기가 되섞여지게 되었다.<sup>1</sup> 게다가 일본서기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일본 사람들이

<sup>1</sup>서기 203년 이전의 진구우(神功)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록은, 전적으로 히미코(卑彌呼)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서기 205년의 기록은, 서기 418년에 일어난 이야기다. 일본서기의 서기 203년과 213년에 관한 기록은, 진구우와 오

좋아하는 신화, 즉 신라 정복의 얘기를, 진구우의 재위 기간속에 끼워 넣기로 했다.<sup>2</sup> 일본서기 (NI: 230-232)는 진구우의 신라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흥겹게 웃기는 어린 아이들 얘기하는 식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근대의 일본 역사가들은 그것을 3세기에 강력한 통일 국가가 일본에 존재 했었다는 증거로 사용 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우스꽝 스럽도록 심각한 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청동 무기 뿐 아니라 청동 거울도, 야요이시대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다. 청동 제품(구리와 주석의 합금)은, 야요이시대 말(서기 100-300년) 일본 국내에서 (대부분이 북 큐우슈우 지방에서) 그 생산이 시작될 때까지, 한국에서 수입 되었던 것이다. 가토리 다다히코(KEJ: 1, 174)는 말한다: “고대 일본에서는 청동 거울이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물건이라기보다, 오히려 보물 또는 의식용(儀式用) 기구였다 . . . 강력한 지배자는 한 거푸집에서 같은 모양의 거울을 여러개 만들어서, 부하 우두머리들에게 권위의 상징으로 나누어 준것으로 보인다.”

사오토메 마사히로(KEJ: 1, 174)도, “청동 무기가 일본에서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 같다. 전투에서의 사용으로 손상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한개도 없으며 . . . 일본의 청동 무기는 . . . 권력의 상징으로 이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에가미(江上波夫, 195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기 고분시대의 부장품을 들여다 보면, 이 문화의 소유자들은 정복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사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전기

오진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연결 시키려고 애쓴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서기 246년 이후에 관한 기록은 거의 전적으로, 4세기 후반(즉, 중기 고분시대)에 일어났을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sup>3</sup>야마토 왜(大和倭) 사람들이 신라에 대해 품고 있던 극단적인 증오심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백일몽(즉, 신라의 정복)을 즐기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일본 서기의 저자들은 진구우(神功)에 관한 대목이, 그같은 환상을 다루기에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프다(1972: 453) 역시 진구우의 신라 원정은 하나의 가공적 이야기지, 결코 사실일 수는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sup>4, 6</sup>

고분시대의 (일본)사람들이, 무장이 더 잘 되어 있는 한국 남부에 상륙했고, 그 곳의 정복 활동에 성공했으며, 그 곳의 기마 민족 문화를 터득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히 보편적 역사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메이슨과 케이거(1972)는, 중국 사서들의 기록이 “중국 학자들이 그것들을 편찬 하고 있던 서기 221년에서 265년까지의 기간에, 일본은 아직도 한개로 통합된 정치 단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로, 그 시점 이후 5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일본에 관계된 어떠한 중국측의 기록도 나타나지 않는다. 샌섬(1931: 36n)은, “서기 400년 이전에는 야마토와 중국의 왕국들 사이에 직접적, 공식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야요이시대(기원전 30년-서기 30년) 다음에 고분시대(서기 300-700년)가 이어지며, 이 고분시대에 들어선 후에야 일본은 야마토 왜(大和倭)로의 통일 과정을 거치는, 원사(原史)시대로 들어간다. 에가미(1964)에 의하면, “고분시대는 일본의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하나인데, 일본 역사상 이 시대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갈라져 왔으며, 현재도 이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할 전망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고사기(古事記)의 제1권은, 신들의 활동과 그들의 일본 열도 식민지화 과정을 신화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제2권은, 진무(神武)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오오진(應神)에서 끝난다. 제3권은, 오오진 이후의 통치자들의 치세에 관한 것을 서술하고 있다. 바안즈(1988: 10)는, “진무는 일반적으로 가공 인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스진(崇神) . . . 혹은 오오진 . . . 등과 동일한 인물로 간주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또 덧붙여 말하기를 (1988: 13):

“오오진에 관한 이야기는  
진무의 동방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데 . . .  
 이것은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키나가-타라시-히메(息長帶比(日)賣命, 氣長足姬尊, 神功)에 관한 고사기의 기록은, 그녀가 오시쿠마 왕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이야기로 끝난다. 고사기는 호무다-와케(品陀和氣命, 譽田別, 應神)를 오키나가의 둘째 아들로 만들어 놓았다. 오키나가의 이 둘째 아들은, 어자(御子)이자 왕위를 이어받을 태자(太子)라 불리었으며, 고사기(KC: 283)는, 그가 뱃속에 있을 때 부터 잠차 나라를 다스리게 되리라는 것이 알려졌다고(知坐腹中國也) 적고 있다. 일본서기 뿐 아니라 고사기의 저자들 역시, 진구우와 오오진 두 사람을 갈라 놓는 2주갑(120년)의 세월을 삼켜버리고, 이들을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설정해 놓았다.<sup>3</sup>

일본서기에 의하면, 주우아이(仲哀, 타라시-나카쓰-히코)는 서기 200년에 죽었고, 진구우(神功, 오키나가-타라시-히메)는 서기 269년에 죽었다. 위지가 3세기 왜 여왕의 나라에 관해서 기록한 이후로, 5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중국 기록에는 왜(倭)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본은 진구우가 죽은 뒤, 서기 390년 오오진(應神, 호무다-와케)이 즉위할 때까지의 120년 동안, 혼동 속에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일본 궁정의 역사가들은, 이른바 “만세 일계(萬世一系)”라는 것을 조작하기 위해, 오오진을 진구우 아들로 만들어 놓았다. 서기 269년부터 389년까지의 기간은,

<sup>3</sup>고사기의 호무다(KC: 295-296)에 관한 장 직전에 있는 짤막한 각주는, 그 같은 가짜 이야기를 조작해야 하는 고사기 저자들의 고뇌를 들어내 보이는 것 같다. 그들은 “호무다”의 이름이, 오키나가-타라시-히메의 “어자(御子)의 어명(御名)”이었다고 쓰도록 강요된 것이 분명하다. 고사기(KC: 295)는, 어떤 신이 자기 이름을 어자의 어명과 바꾸기를 원했으며(以吾名欲易御子之御名),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찼으나, “어명에 따라 삼가 성함이 바뀌어 지이다”라고 말하면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고 있다(恐隋命易奉).

일본서기에서 실종되어 버린 두 주기의 간지(干支)에 해당한다.<sup>4</sup>

쯔다(津田佐右吉, 1948: 314)는, 일본서기와 고사기가 설명하고자 한 것은 일본 황실과 국가의 기원이지, 일본 민족의 유래가 아니었다고 단언하고 있다.<sup>〈J.2〉</sup> 신대(神代, 말하자면 황실의 조상신인 황조신(皇祖神)의 시대)의 이야기를 맨 처음에 소개한 다음, “사람의 시대”로 옮겨가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기록은, 오로지 황실에 관한 것이지 “우리들의 민족”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sup>〈J.3〉</sup> 그리고 쯔다(1975: 458)는, 4세기와 5세기의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상황이, 전부 신대(神代)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한다.<sup>〈J.1〉</sup>

쯔다(1966: 110-111)에 의하면, 일본 국가 성립의 정세라든가, 황실의 유래와 그 본질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까지도, 그 연구 자체로 부터 분명하게 견제질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전형적인 주장을 가진 자, 혹은 역사를 정략(政略)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 권력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학도와 문필에 종사하는 자들도 그 권력에 영합 추종하여, 국민을 미혹시키는 허위 미망(虛僞迷妄)한 설을 조작하여 소리 높여 선전했으며, 학문적 연구는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에 의해서, 또 언론에 의해서, 심한 압박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sup>〈J.12〉</sup> 쯔다는, 이 모든 고루한 사상은 일본인의 문화 정도가 낮았고 교양이 모자랐기 때문에 존재했으며, 특히 비판적인 정신이 결핍되어 있어서, 사물의 진실을 규명하고 또 그것으로 국민의 사상과 행동을 그 기초 위에 세우고자 하는, 학문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sup>〈J.13〉</sup>

히라노(平野邦雄, 1977)에 의하면, 쯔다(1873-1961)는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엄격한 본문 비평(本文批評)을 받도록 했으며, 그 초기 신화를 다루는 많은 부분이, 지배자인 황족을 합법화하기 위해 조

<sup>4</sup>레드야드(1975)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상고(相考)하여, 3세기와 4세기의 기간에서 120년, 혹은 간지(干支) 두 주기가 빠졌다고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나카미치요 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성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쓰다는, 주우아이(仲哀)까지의 14대 천황들이, 제기(帝紀, 6세기 전반에 편찬)에는 단지 사후에 부여되는 시호(諡號)로만 언급되어 있는 데 반해, 오오진(應神)에서 케이타이(繼體)까지의 천황들은 왕자 때부터 사용한 실제의 이름으로 적혀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오오진을 야마토 황족의 시조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쓰다는 초기 14명의 천황 이름은,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sup>5</sup>

실제로 상당수의 전후세대 일본 역사가들이, 제기(帝紀)의 원본에는, 오오진에서 케이타이까지 12명의 천황 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믿고 있다. 기기(記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주우아이(仲哀)까지의 왕위 승계 형식을 보면, 전적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형식의 승계는 7세기 후반 텐지(天智)치세 이후에야 확립된 것으로, 텐치 이전의 승계는 기본적으로 부자간이 아니라 형제간의 것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쓰다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기록은 주우아이와 오오진 사이를 경계로 해서 양분될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주우아이까지의 서술을 전설적이고, 수상적이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진구우(神功)의 한국 원정에 관한 이야기의 심빙성을 믿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오오진이 쓰쿠시(筑紫)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믿지 않는다. 이노우에(井上) 외 3인, 1984: 271-272, 참조.]

히라노(平野邦雄, 1977)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대한 쓰다의 비평이, 일본 고대사의 재구성에 있어서, 참으로 본받을 만한 접근 방법의 하나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2차 대전 이후에 전개된 오오진조(應神朝)에 대한 이론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하야시야(林屋友次郎)는, 야마토 조정이 오오진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진무(神武)와 스진(崇神)은 오오진의 업적을 찬양해서 만

<sup>5</sup>레드야드는(1975), “1942년 5월, 쓰다는 오랜 심문과 재판 과정 끝에, 황실의 권위를 모독했다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의 저서는 2년 전부터 이미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들어진 가공의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6</sup> 나오키(直木孝次郎)는, 나니와(難破)에 오오진과 닌토쿠(仁德)에 의해 새로운 왕조가 수립되었는데, 이들은 그 전 왕조의 통치자들과 계통이 달랐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요시이(吉井巖)는, “타라시히코”라는 칭호가 부여된 케이코(景行), 세이무(成務), 주우아이의 세 천황은, “스진조”(崇神朝, 즉, 이름이 각각 이리히코와 이리히메인, 스진과 스이닌)와 “닌토쿠조”(仁德朝)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해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오진은 단순히 새 왕조의 창건자로 상상한, 전설적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오키는 이 견해를 좀더 구체화 시켜서, 오오진과 닌토쿠는 본래 “호무다노-히-노-미코”라는 이름의 동일한 인물을 나타낸 것이었는데, 나중에 두 사람의 다른 통치자, 즉 호무다(譽田別)와 오후사자키(仁德)로 간주하게 된 것이라고 단언한다.<sup>7</sup> [역시 이노우에(井上)외 3인, 1984: 272-274, 참조.]

<sup>6</sup>야마토 왜가 오오진과 더불어 시작 되었다는 주장은, 또 일본서기(예를 들어, NII: 9)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자주 인용된다는 사실로서 지지를 받고 있다: “태종지제 때로 부터(自胎中文帝, 진구우가 신라 정벌때 오오진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뜻) . . . ” (일본서기, NII: 34 도 참조). 아오키(1974: 42)는 하리마 풍토기(播磨風土記)의 기록을 근거로, “정복왕으로서의 호무다(譽田)의 권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 이유나 부쳐서 지방의 어떤 수장으로부터라도 그 지역 지배자로서의 칭호를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sup>7</sup>야마토 왜가 오오진 혹은 닌토쿠와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속일본기(續日本紀二: 220-225)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얘기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선성, 1924, 참조): “그동안 천황의 뒤를 이을 후사로서 황태자(聖武, 재위 724-749년)가 탄생하셨으니, 우리는 모천이신 후지와라(藤原) 부인을 황후(皇后)로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 . 이런 일은 우리 시대에만 생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니와(難破)의 다카츠노 미야에서 통치하시던 오후사자키 천황께서, 가쓰라키 노 소쓰히코(葛城曾豆比古, 葛城襲津彦)의 따님이신 이와노히메(伊波乃比賣, 磐文媛)를 황후로 맞이하시고, 황후와 더불어 천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금도 새삼스럽거나 이상스런 통치형태가 아니라 본래부터 지켜온 관습인 것이다(宣命第七詔).”



킬레이(1973)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기록(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9명의 통치자에 대한 계보는 . . . 비록 전혀 다른 근거에서 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미즈노의 결론, 즉 기기(記紀)에 실린 첫 9명의 ‘천황’들은 7세기 말에 조작된 것이라는, 결론을 확인해 줄 따름이다 . . . 히미코(卑彌呼)나 스진(崇神)과 같이 신관(神官)을 겸한 지배자의 통치를 받았던 공동체는 . . . 엄격한 의미에서, 반드시 국가라고 볼수는 없다는 것을 재확인 할수 있을 것이다. 야마토의 왕들에 대한 가장 오래 된 믿음만한 계보 자료는 . . . 4세기의 정복자들 및 그들이 만든 정치 조직체와 연관이 있다. 야마토에 정복 정치 조직체가 창건되었다는 것은, 예측한대로, 거의 문서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역사가들 중의 일부는 이 정치 조직체의 첫번째 역사적인 지배자를, 기기(記紀)에 나오는 오오진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일부는 그의 아들 닌토쿠라고 주장 하고저 한다 . . . ”

최재석(崔在錫, 1990c)은 최근, 일본 역사가들의 이 같은 고사기, 일본서기 내용 분석에 치중하는 접근 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에 의하면, 쓰다(津田左右吉)가 몇가지 긍정적인 공헌을 한 것 만은 사실이지만(최재석, 1990c: 46), 쓰다의 접근이란 것은 아직도 모범적인 접근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후의 일본 역사가들도 약간의 긍정적인 공헌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전쟁전의 전통에서 그들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전후에 일본에서 전개된 고사기, 일본서기 내용 분석에 치중하는 접근 방법은, 고고학적 발견에 입각해서 한국에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포함시킨, 좀더 큰 틀에 입각한 야마토 왜(大和倭)의 형성에 관한 연구를 수반하게 되었다. 특히 예가미(江上波夫)의 고대사 재구성은, 전통적 선입관(先入觀)에서, 비록 완전치는 않더라도, 크게 탈피한 접근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쓰다(1948: 641)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서, 황족이 일본 통일을 완수한 기간은, 대략 5세기가 시작될 때였다”고 말하고 있

다. 그러면서도 쯔다는 황실의 근원이 이민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혐오감을 들어내 보인다. 쯔다(1966: 120)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손(天孫)이 강림했다는 것이, 황실의 선조가 해외에서 도래(渡來) 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주장, 혹은 새로 온 다른 민족이 토착 민족을 정복했다는 주장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된 비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일일이 합리적 사실로서 해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신대(神代)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므로, 그것을 일일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학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할 수 없다. 그리고 천손의 강림을, 천손 민족(天孫民族)의 도래로 생각한다는 것은, 민족의 이동(異同) 또는 이주(移住)의 경로 등을 생각하는 데 사용되는 학문적인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다.”<sup>8<J. 4></sup>

우리는 또, 백제에서 아찌노 오미(阿知使主)가 17개 현(縣)의 인부들을 이끌고 왔다는 것을 그가 강력히 부인하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쯔다(1972: 29)에 의하면, 다케치군(高市郡, 今來郡)이 이들 17개 현에서 온 인부들로 초만원을 이루어, 다른 성씨의 사람들은 열 명에 한두 사람을 헤아릴 정도였다는 속일본기(續日本紀)의 기록은, 망언(妄言)도 보통 망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쯔다에 의하면, 귀화인(歸化人)이 야마토 조정의 정치적 중심에 그렇게도 가까운 땅을 대부분을 점거했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sup>8<J. 5></sup> 최재석(崔在錫)의 비평이 지적했듯

<sup>8</sup>신찬 성씨록(新撰姓氏錄, 사에키, 佐伯有清: 357-358)은, 아찌노오미(阿知使主)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나중에 다케치군(高市郡)으로 이름이 바뀐 이마키군(今來郡)을 건설했으며, 그 지역의 주민이 너무 많아지자 결국 셋쓰(攝津), 오오미(近江), 하리마(播磨)와 같은 타지역으로 분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신찬 성씨록은 또, 그들의

이, 이런 얘기들은 모두 쓰다의 사고의 한계를 들어내 보이는 것이다.<sup>9</sup>

후손들 가운데는 아스카 촌주(飛鳥村主), 아야비토 촌주(韓人村主), 이마키 촌주(今來村主)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한다.

<sup>9</sup>쓰다(1963)의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가 그의 사고의 근본적인 한계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본 민족의 본고장, 혹은 그들의 이주(移住) 경로를 조명하는 데 아무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 . . 일본 민족은 생활 양식에 서 뿐만 아니라, 체격, 언어 등의 면에서 한국, 만주, 몽골의 민족과 다르다 . . . 심지어 일본의 바로 이웃에도, 일본 사람과 혈연으로 관련된 사람이 거의 없다.” 아마도 이른바 “임나 일본부(任那日本府)”의 이야기를 뒷바침하기 위해서 였겠지만, 쓰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남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본인과 혈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약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